

(붙임)

인장 9과 설명 자료



< 황제지보(皇帝之寶) >

- 제작시기: 1897년(광무 원년)
- 교명(敎命)·교서(敎書)·교지(敎旨)에 사용한 국새다. 황제국임을 천명한 대한제국 선포 이후부터 국새로 사용된 황제지보는 훈기(勳記, 훈장서훈 사유)와 친임관칙지(親任官勅旨, 국왕이 직접 임명하던 관직)용으로 제작됐다.



< 수강태황제보(壽康太皇帝寶) >

- 제작시기: 1907년(융희 원년)

- 1907년(융희 원년) 순종황제(1874~1926년)가 고종황제(1852~1919년)에게 '수강(壽康)'이란 존호를 올리면서 제작한 어보(御寶)이다. 8각의 측면에는 주역(周易)의 팔괘(八卦)를 새겼는데, 이와 같은 어보는 조선과 대한제국을 통틀어 희귀한 형식이다.



< 유서지보(諭書之寶) >

- 제작시기: 1876년(고종 13) 경
- 조선 시대 국왕의 명령서인 유서(諭書)에 날인하여 사용한 인장이다. 유서지보는 세종대부터 고종대까지 사용됐으며, 대한제국 시대에는 칙명지보(勅命之寶)로 명칭이 바뀌었다.



< 준명지보(濬明之寶) >

- 제작시기: 1889년 이후

- 준명지보는 세자 시강원 관원의 교지에 사용한 국새로 1889년(고종 26)부터 사용됐다. 이와 유사한 국새로 '흠문지보(欽文之寶)', '명덕지보(明德之寶)', '광운지보(廣運之寶)' 등이 있다.



< 향천심정서화지기(香泉審定書畫之記) >

□ 제작시기: 19세기 전반(헌종 연간)

□ 향천(香泉)은 헌종의 호로, 헌종이 소장했던 서화작품에 찍었던 인장이다.



< 쌍리(雙螭) >

- 제작시기: 19세기 전반(헌종 연간)
- 왕실의 사인(私印)인 보소당 인장으로, 원형의 두 마리의 용을 단순화해 도드라지게 조각했다.



< 연향(硯香) >

- 제작시기: 19세기 전반(헌종 연간)
- 보소당 인장으로 사각형 인장 위에 거북모양紐(紐)를 얹고 '벼루의 향기[연향(硯香)]'라는 뜻의 두 글자를 음각으로 새겼다.



< 춘화(春華) >

- 제작시기: 19세기 전반(헌종 연간)
- 보소당 인장으로 단순한 사각형 인장에 음각으로 '봄의 꽃'이라는 뜻의 두 글자를 새겼다.



< 우천하사(友天下士) >

- 제작시기: 19세기 전반(헌종 연간)
- 헌종의 당호(堂號)인 보소당(寶蘇堂)에 소장되어 있는 도서에 사용한 왕실수장 인장이다. '세상의 선비들과 벗함[우천하사(友天下士)]'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.